

EU와 한-EU FTA에 대한 대학생 인식과 상관성에 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f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and Correlation on the EU and Korea-EU FTA

이 재 득** Chae-Deug Yi

목 차	
I. 서 언	IV. 결언
II. EU와 FTA에 대한 인식변인 조사	참고문헌
III. EU 변인별 연관성과 차이성 분석	Abstract

국문초록

본 연구는 EU와 한-EU FTA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 등의 인식 변수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구결과 첫째, 이해도와 중요성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은 미국, 일본, 중국과 비교할 때 다소 낮게 나타났다. 한-EU FTA에 대한 이해도와 중요성은 한-미 FTA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교차분석 결과 성별과 각 지역·국가 간 이해도와 연관성이 나타났고 성별에 따라 EU의 중요성에 대한 차이가 나타났다. 분산분석 결과, 대학생들이 EU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한-EU FTA 중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한-EU FTA의 한국경제 공헌도, EU 통합과 EURO의 세계경제에 대한 공헌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준상관분석 결과, 학

* 이 과제는 2015년도 부산대학교 교수 국외장기파견 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경제통상대학 무역학부 교수

년·성별에 따라 주요 지역·국가 간의 중요성 인식 간에는 정준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별분석 결과, 한국-EU FTA의 한국경제 공헌도에 대해서는 차이성이 나타났다.

<주제어> 유럽연합, 한-EU FTA, 유로화, 상관성

I. 서 언

EU는 공동의 유럽이념을 형성하며, 아주 긴 시간 동안 통합을 진행해온 EU는 1999년 유로화를 출범하게 되었고, 2016년 5월 현재 28개의 유럽국가가 참가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경제통합체를 이루고 있다. 한국과 EU는 교역을 증대시키기 위해 2009년 한-EU FTA 협정을 맺었고 드디어 2011년 7월 1일 한-EU FTA 협정을 발효하였다. 그렇지만 그 후 발발한 EU의 재정적자 및 경제위기로 인하여 예상했던 것만큼의 교역액 증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현재에도 한국의 교역패턴 및 수출경쟁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지역 및 국가 간에 FTA 협정을 맺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교역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한국-미국, 한국-EU, 한국-중국 간의 FTA를 2010년 전후로 발효하는 등 경제영토를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정치 및 경제 우방인 미국과 인접국가들인 일본과 중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EU 대한 연구는 한국-EU FTA 체결 전까지는 다소 미흡했다. Krugman (1991), Eaton과 Kortum (2002), Parsley와 Wei (2001) 등의 지리와 무역을 고려한 연구에 의하면,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유리한 인접국가와의 무역량이 많으며, 그 지역국가를 잘 알고 있지만, EU는 우리나라와 인접한 국가가 아니라서 다소 소홀하게 생각되어왔다. 그러나 한국-EU FTA와 EU 재정 및 경제위기로 인해 최근 우리나라와 EU에 대한 FTA 연구도 많이 나오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주로 한-EU FTA 효과를 예측하는 김홍중 외(2005)와 송백훈 외(2007) 등의 연구가 있었다. 2000년대 중반에는 한국과 EU 간의 산업내무역 분석 등 교역구조에 관한 이재득 (2009, 2012), 김태기(2012), 명진호와 정재화(2012), 예한나와 이재득(2014) 등의 연구가 있었다. 조미진과 김태황(2012)은 한국-EU FTA 이후 성과를 특허관세 활용률, 산업별 및 품목별 거래품목변화를 비교하여, FTA 발효 후 한국의 수출입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Carl Norsten과 Olena Burlutska (2012)이 스웨덴 제조업 종사 회사를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와 무역통계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EU FTA의 영향을 분석

하였다. Yi(2015)는 한-EU FTA 전후의 한국과 EU 간 기대 교역액과 실질 교역액에 대한 차이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을 주로 실제 과거의 경제 및 무역 통계치를 이용하여 한국과 EU 간의 교역에 대해 연구를 하였지만, 2010년대 EU의 예상하지 못한 경제 및 재정위기 등으로 EU의 소득과 수입이 감소하였고, 주로 과거치의 무역액을 가지고 추정하였기 때문에, 한국-EU 간의 FTA 기대효과가 사실상 단기적이지만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주로 한국과 EU의 과거 교역액을 가지고 한-EU 교역을 분석한 것과는 달리, EU와 EURO 그리고 한국-EU FTA에 대한 중요성과 이해도 대한 인식변인에 따른 한국경제 혹은 세계경제에 대한 향후 공헌도에 어떤 연관성과 차이성이 있는가를 분석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첫째, EU 지역과 EURO 그리고 한국-EU FTA에 대한 이해도와 중요성 등에 대한 인식변인을 조사한다. 둘째, EU 지역과 한국-EU FTA에 대한 이해도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변인에 따라 한국-EU FTA가 한국경제에 대한 향후 공헌도와 영향에 차이성이 있는지 분석한다. 셋째, 이러한 EU 지역과 한국-EU FTA에 대한 이해도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변인에 따라 EU통합과 EURO 통합이 세계경제에 향후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며 공헌하게 될지, 그 연관성과 차이성에 대해 실증분석한다.

이를 위해 EU 지역과, 한국-EU의 FTA와 EU 통합 및 EURO 통합 등에 대한 이해도에 따른 한국-EU의 FTA의 한국경제 공헌도와 EU 통합 및 EURO 통합의 세계경제에 대한 공헌 혹은 향후 효과에 대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바탕을 두고 한국과 EU 교역에 대해 실증조사연구를 하고자 한다.

대학생들은 모두가 EU에 대한 전문가들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나라의 미래세대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주역일 뿐만 아니라, 이들 젊은 세대가 EU 국가와 지역, EURO 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한국-EU FTA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한-EU FTA, EU와 그리고 EURO 통합이 한국경제 혹은 세계경제에 어떻게 공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EU와 한국-EU FTA에 대한 중요성과 이해도에 대한 인식변인을 중심으로 한국-EU FTA, EU와 EURO 통합에 대한 효과와 그 전망에 대해 그 연관성과 차이성을 향후 우리나라를 깊어지고 갈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조사하여 교차분석, 분산분석, 판별분석, 정준상관분석 등의 다변량 통계분석을 통하여 실증분석한 연구는 전혀 없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 EU와 EURO, 한-EU FTA 등에 대한 이해도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변인들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III장에서는 조사한 인식변인별로 향

후 한국-EU의 FTA의 한국경제 공헌도와 EU 통합 및 EURO 통합의 세계경제에 대한 공헌도 등에 어떤 연관성과 차이성이 있는지 교차분석과 다변량 분산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변인 집단별로 어떤 차이와 상관성이 있는지 정준상관분석과 판별분석을 한다. IV장에 서는 본 연구의 요약 및 한계점 등을 밝힌다.

II. EU와 FTA에 대한 인식변인 조사

본 연구는 미래의 주역들이 될 젊은 대학생이 EU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EU FTA, EU, EURO가 우리나라와 세계경제에 향후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에 기반을 둔 설문조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설문조사 대상은 부산대학교 EU 관련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 135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하였다. 1학년과 2학년 등의 저학년들이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남녀별로는 1명의 결측치가 발견되어 남자가 63명, 여자가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조사는 설문에 대한 리커트 측정방식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해도와 중요성인식에 대한 측도는 5가 가장 높은 것이고 1이 가장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1. 주요 지역·국가들과 FTA에 대한 이해도

먼저 주요 지역·국가들에 대해 얼마나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 조사 결과는 <표 1>의 상반부에 나타나 있다. 대학생들은 광복 후,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우방인 미국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이웃 국가인 일본에 대한 이해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유럽과 EU로 나타났으며, 예상과는 달리 요즘 우리나라와 무역액이 가장 많은 중국에 대한 이해의 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ASEAN이 마지막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일본은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정치경제적으로 또한 현대사에 있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이 이해하고 있다. EU와 유럽국가들 역시 선진 문화국가로서 오랫동안 학습해왔고 특히 최근 2011년 전후로 한국과 EU FTA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이해도 순위가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와 해방 후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미국이나 해방 전후 우리나라와 역시 정치경제적으로 관계를 맺어 온 일본에 비해, 1940년대 말에 공산주의 정

권이 들어서 중국이 봉쇄경제를 취해왔고 시장의 개방도 늦게 되었고 한국과 중국의 수교 역사도 얼마 안 되기 때문일 것이다. ASEAN은 이들 국가보다 우리나라에 있어 정치경제 혹은 역사적으로 교류한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적인 관점에서 주요한 지역·국가들과 우리나라와의 FTA에 대해 얼마나 전반적으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표 1>의 하반부에 나타나 있다. <표 1>에 나와 있는 대로 한-미 FTA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한-EU FTA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아직 체결은 안 되었지만 한-중-일 FTA가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고, 체결되었지만 한-ASEAN FTA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EU와 주요 지역·국가들에 대한 이해도

지역·국가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	주요 지역·국가	평균	표준편차	순위
	1. 유럽			
	2. EU	3.1259259	0.0634634	4
	3. 중국	3.2238806	0.0731191	3
	4. 미국	3.0661765	0.0775455	5
	5. 일본	3.3037037	0.0730555	1
	6. ASEAN	3.2500000	0.0772273	2
		2.4296296	0.0769375	6
FTA에 대한 이해도	주요 지역·국가와의 FTA	평균	표준편차	순위
	1. 한-미 FTA			
	2. 한-EU	3.2426471	0.0798257	1
	3. 한-ASEAN FTA	2.8444444	0.0827035	2
	4. 한-중-일 FTA	2.2941176	0.0738880	4
		2.5111111	0.0764516	3

물론 최근 2014년 후반기에 한-중 FTA는 성사되었지만 설문조사는 2014년 후반기에 시행되어 그 당시 한-중 FTA는 체결되지 않았고 2016년 5월 현재도 한-중-일 FTA는 아직 성사되어 않았지만 아무래도 중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치 및 경제적 관계 때문에, 다소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적 비중이 적지만, 발효 중인 한-ASEAN FTA에 대한 이해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2. 주요 지역·국가들과 FTA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주요한 지역 국가들에 대해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는 <표 2>의 상반부에 나와 있는 대로, 광복 후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우방이자, 정치, 경제, 군사적인 면에서 모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가장 중요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그 다음은 비록 늦게 수교하고 시장개방은 늦어 국가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는 미국, 일본, 그리고 EU보다 낮았지만, 최근 미국 다음의 경제대국이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무역파트너 국가인 중국이 두 번째로 중요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 다음은 해방 후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교역의존도가 높고 교역액이 컸던 이웃 국가인 동시에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일본이 3 번째로 중요한 국가로 나타났다. <표 2>에서 지역 국가들과의 전반적 이해도 조사에서 EU가 중국보다 높게 나타난 것과는 달리, 중요성 면에서 EU의 중요성은 미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보다 낮게 나타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중요한 높아져가고 있는 ASEAN과 신흥시장인 인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들 역시 다소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중요성이 보통인 3.0보다 다소 높은 3.37로 나타남) 아무래도 신흥시장들이고 지경학적으로 다소 거리가 있어 당연히 미국이나 중국, 일본 및 EU 보다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2> 주요 지역 국가들과 FTA에 대한 중요성 인식

	중요성	평균	표준편차	순위
지역·국가의 중요성 인식도	1. 중국	4.4705882	0.0642886	2
	2. 미국	4.5955882	0.0575259	1
	3. EU	3.8235294	0.0633852	4
	4. 일본	4.0882353	0.0711488	3
	5. ASEAN	3.5735294	0.0689419	5
	6. 인도	3.1470588	0.0727078	6
지역·국가와의 FTA 중요도	1. 한-미 FTA	4.3382353	0.0583175	1
	2. 한-EU	3.9779412	0.0594702	3
	3. 한-ASEAN FTA	3.5808824	0.0672808	4
	4. 한-중-일 FTA	4.1397059	0.0669705	2

주요 지역 국가들과의 FTA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표 2>의 하반부에 나와 있는 대로 한-미 FTA가 가장 중요한 무역협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다음은 한-중-일 FTA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반면, EU는 지역 국가들과의 전반적 이해도 조사에서 중국보다

높게 나타난 것과는 달리 한-EU FTA의 중요성은 한-중-일 FTA의 중요성보다 낮게 나타났고, 한-ASEAN FTA는 예상되었던 대로 이들 FTA 보다 중요성이 낮게 나타났다.

그리하여 미국은 우리나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에 대해 가장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한-미 FTA는 우리나라의 FTA 중 가장 중요한 무역협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국가에 대한 이해도와 중요성, 그리고 그 지역·국가와의 FTA의 중요성은 꼭 같은 순위로 나타나지 않고 다소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면 <표 1>의 지역국가와 FTA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조사에서 한-EU FTA는 한-중-일 FTA 보다는 높게 나타났지만, 지역국가의 중요성 조사인 <표 2>에서 나타나 있듯이, EU는 중국과 일본보다 그 중요성이 낮게 나타났고 동시에 한-EU FTA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역시 한-중-일 FTA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한-EU FTA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한-ASEAN FTA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3. 한국-EU FTA, EU 및 EURO의 경제 공헌도

한편, 공헌도와 영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한국-EU FTA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EU 경제통합의 세계경제발전 공헌, EURO 화 통합이 세계경제에 공헌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각각 하였다. 공헌도 혹은 영향력을 조사하기 위해 역시 5점 리커트 측정방식을 사용하였으며, 1은 아주 긍정적, 3은 보통, 5는 아주 부정적 등의 측도를 이용해 수치가 낮을 수록 공헌도가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측정결과 <표 3>에서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향후 한국-EU FTA는 평균이 2.16으로 나타나 한국경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EU 경제통합의 세계경제발전 공헌도는 평균이 2.32로 나타나 역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EURO화 통합의 세계경제에 대한 공헌도는 2.59로 나타나 EU 경제통합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2010년대 EU의 경제 및 재정 위기로 인해서 재정위기를 겪었던 그리스 등의 탈퇴에 관한 논란 등 EURO에 대한 회의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3> EU의 한국 및 세계경제에 대한 공헌도

한-EU FTA, EU와 EURO 경제 공헌도	평균	표준편차	순위
1. 한국- EU-FTA의 한국영향	2.1629630	0.0495501	1
2. EU 경제통합의 세계경제발전 공헌	2.3235294	0.0580008	2
3. EURO 화 통합이 세계경제에 공헌	2.5925926	0.0633471	3

4. 한-EU FTA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위의 조사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한-EU FTA의 한국 경제에 대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4> A항에 나와 있다. 먼저 한-EU FTA의 한국 경제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아주 긍정적일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전체의 8.96%가 응답했으며, 66.42%가 긍정적일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23.88%의 학생들은 보통일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부정적 혹은 아주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1명에 불과하였다. 그리하여 전체 조사대상자의 75%이상인 한-EU FTA가 한국경제에 대해 긍정적 혹은 아주 긍정적일 것이라고 응답함으로써, 이 조사결과 한-EU FTA는 향후 한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표 4> 한-EU FTA, EU, EURO의 한국 혹은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

A. 한-EU FTA의 한국에 대한 공헌도							
	아주 긍정적	긍정적	보통	부정적	아주 부정적	합계	평균 (표준편차)
응답자 (%)	12 8.96	89 66.42	32 23.88	1 0.75	0 0	134 100	2.16 (0.04)
B. EU 경제통합의 세계경제에 대한 공헌도							
	아주 긍정적	긍정적	보통	부정적	아주 부정적	합계	평균 (표준편차)
응답자 (%)	11 8.15	74 54.81	45 33.33	5 3.70	0 0	135 100	2.32 (0.06)
C. EURO의 세계경제에 대한 공헌도							
	아주 긍정적	긍정적	보통	부정적	아주 부정적	합계	평균 (표준편차)

응답자 (%)	7 5.22	54 40.30	60 44.78	13 9.70	0 0	134 100	2.59 (0.06)
---------	-----------	-------------	-------------	------------	--------	------------	----------------

5. EU 경제통합과 EURO의 세계경제에 대한 공헌도

EU 경제통합이 세계경제에 대해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질문에 <표 4> B항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응답자의 8.15%가 아주 긍정적이라고 보았고, 54.81%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응답을 하여, 전체 응답자 중 약 63%가 EU 경제통합은 향후 세계경제에 긍정적으로 공헌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응답자의 33.33% 즉 응답자의 3분의 1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지만 3.7%만이 부정적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보면 EU 경제통합의 세계경제에 대한 공헌 역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EURO화 통합이 세계경제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 <표 4> C항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전체 응답자의 5.22%가 아주 긍정적이라고 보았고, 40.30%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응답을 하여, 전체 응답자 중 약 45%가 긍정적으로 보았다.

그러나 응답자의 44.78%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9.7%는 부정적이라고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EURO화 통합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EU 통합이 세계경제에 대한 긍정적 영향에 대한 응답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EU 통합자체는 세계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분명히 주겠지만, 2010년 이후 나타난 유럽 재정 및 경제 위기와 그로 인한 유로화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회의 등 부정적인 면도 나타났기 때문에 응답자의 약 45%만 긍정적으로 공헌할 것이라고 응답했지만 보통 혹은 부정적일 것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도 5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III. EU 변인별 연관성과 차이성 분석

한국과 EU 및 우리나라와 주요 지역·국가와의 FTA에 대한 이해도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변인을 중심으로 한국-EU FTA, EU와 EURO 통합에 대한 공헌도에 대해 어떤 연관성과 차이성이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 분산분석, 판별분석, 정준상관분석 등을 통한 통계적 실증분석을 한다.

1. 교차분석을 통한 연관성 검증

1) EU 이해도

(1) EU, EU와 유럽연합, EURO 이해도

학년과 EU, EU와 유럽연합의 차이, EURO화 등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 간에 개별적으로 연관성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교차분석을 한 결과가 다음 <표 5>에 나타나 있다. 교차분석을 통한 χ^2 통계량의 값과 likelihood ratio χ^2 값, Phi 계수값, 분할표계수(contingency coefficient)값, 그리고 Cramer's V값 등으로 보면 학년별로 이들 EU, EU와 유럽연합, EURO화 등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 간에는 연관성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5% 유의수준에서 모두 기각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성별과 EU, EU와 유럽연합, EURO화 등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는 개별적으로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학년과 EU, EU와 유럽연합, EURO

학년	EU	유럽과 EU 차이	EURO 화
통계량	값(확률)	값(확률)	값(확률)
chi-square(χ^2)	6.7612 0.0799	3.9784 0.2638	1.3176 0.7250
likelihood ratio χ^2	4.9559 0.1751	3.9989 0.2616	1.2480 0.7415
Mantel-Haenszel χ^2	2.7316 0.0984	0.1486 0.6999	0.1228 0.7260
Phi 계수	0.2255	0.1717	0.0988
contingency 계수	0.2199	0.1692	0.0983
Cramer's V	0.2255	0.1717	0.0988

(2) 성별에 따른 EU 등 주요 지역·국가 이해도

성별과 우리나라의 주요한 지역·국가에 대한 이해도 간의 연관성을 교차분석을 한 결과가 <표 6>에 나타나 있다. 먼저 성별과 유럽 이해도, 성별과 EU 이해도, 성별과 일본 이해도, 성별과 ASEAN 이해도 간의 연관성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6>의 교차분석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성별과 중국에 대한 이해도, 성별과 미국에 대한 이해도는 χ^2 통계량의 값과 likelihood ratio χ^2 값, Phi 계수값, 분할표계수(contingency coefficient)값, 그리고 Cramer's V값 등으로 보면 5% 유의수준에서 서로 연

관성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모두 기각되었다.

특히 교차분석 과정의 분할표를 조사한 결과, 남자의 44%가 중국을 잘 안다고 응답한 반면, 여자는 19%만이 중국을 잘 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남자의 50%가 미국을 잘 안다고 응답하였지만 여자는 35%만이 미국을 잘 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하여 성별과 유럽 이해도 및 성별과 EU 이해도 간에는 연관성이 없었던 반면, 성별과 중국 및 미국 이해도 간의 연관성이 유의적으로 나타난 것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아무래도 정치적 혹은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어 역사적으로 볼 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잘 알고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EU와 유럽국가들은 정치경제적으로 아무래도 최근 한국-EU FTA가 결성되기 전까지 아무래도 이들 지역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도가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고, 특히 유럽이나 EU에 대한 사회문화, 역사, 예술적인 측면의 매력 때문에 여자들이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EU 국가들에 대한 여행이나 관광 등의 관심도가 높게 나와 남녀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 6> 성별과 각 지역·국가 이해도

성별	유럽		EU		중국		미국	
	Value	Prob	Value	Prob	Value	Prob	Value	Prob
Chi-Square	6.193	0.185	5.384	0.25	10.833	0.028	10.680	0.030
Likelihood Ratio Chi-Square	7.727	0.102	6.170	0.18	11.003	0.026	12.044	0.017
Mantel-Haenszel Chi-Square	0.233	0.628	0.000	0.98	5.9530	0.014	3.4814	0.062
Phi Coefficient	0.214		0.200		0.2822		0.2813	
Contingency Coefficient	0.209		0.196		0.2716		0.2708	
Cramer's V	0.214		0.200		0.2822		0.2813	

(3) 학년 및 성별과 한-EU FTA 이해도 인식

이제 학년 및 성별과 우리나라의 주요한 지역·국가와 FTA에 대한 이해도 간의 연관성을 교차분석을 한 결과가 이들 간에는 연관성이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초점이 한국-EU FTA이므로 학년과 한국-EU FTA, 성별과 한국-EU FTA에 관한 교차분석의 결과만을 보면 그 교차분석에 따른 통계 값들이 <표 7>에 나타나 있다.

그리하여 <표 7>의 교차분석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학년과 한국-EU FTA 이해도 간과 성별과 한국-EU FTA 이해도 간의 연관성을 각각 분석하기 위해 χ^2 통계량의 값과 likelihood ratio χ^2 값, Phi 계수값, 분할표계수(contingency coefficient)값, 그리고 Cramer's V값 등으로 보면 모두 5% 유의수준에서 서로 연관성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모두 기각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성별과 학년과는 구분 없이 한국-EU FTA에 대해 최근 결성되어 비교적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남녀 간에 유의적인 이해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7> 학년 및 성별과 한국-EU FTA

한-EU FTA(종속변수)	학년		성별	
	Value	Prob	Value	Prob
Chi-Square	10.3423	0.7977	4.4402	0.4879
Likelihood Ratio Chi-Square	12.0858	0.6725	4.8543	0.4339
Mantel-Haenszel Chi-Square	0.2527	0.6151	1.1631	0.2808
Phi Coefficient	0.2778		0.1814	
Contingency Coefficient	0.2677		0.1784	
Cramer's V	0.1604		0.1814	

2) 지역·국가의 중요도 인식의 차이성

(1) 학년 및 성별과 지역·국가의 중요도

먼저 학년과 우리나라의 중국, 미국, EU, 일본, 아세안, 인도 등의 주요 지역·국가의 중요도 인식 간에 연관성이 있는지 알기 위해 교차분석을 한 결과, 학년에 따른 이들 주요 지역·국가에 대한 중요도의 인식에는 차이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중국, 미국, EU, 일본, 아세안, 인도 등의 주요 지역·국가의 중요도 인식 간에 연관성이 있는지 알기 위해 교차분석을 한 결과가 <표 8>에서 나타나 있다. 교차분석 결과 성별과 주요 지역국가인 중국, 미국, EU 간에는 χ^2 통계량의 값과 likelihood ratio χ^2 값, Phi 계수값, 분할표계수(contingency coefficient)값, 그리고 Cramer's V값 등으로 볼 때 모두 10% 유의수준에서 서로 연관성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모두 기각하고 있다. 성별에 따른 중요도 인식에 대한 차이는 중국, 미국, EU 간 국가별로 다소 다르게 나타났는데, 남자들은 중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남녀 모두 미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남자들이 미국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

는 반면 여자들은 EU가 더 중요하다고 5-10% 유의수준에서 각각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성별과 그 외 일본, 아세안, 인도 등의 지역·국가들 간의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표 8> 성별과 지역·국가들의 중요도

Statistic	중국		미국		EU	
	Value	Prob	Value	Prob	Value	Prob
Chi-Square	9.8971	0.0422	8.5223	0.0742	8.3554	0.0392
Likelihood Ratio Chi-Square	11.6800	0.0199	9.4644	0.0505	9.9083	0.0194
Mantel-Haenszel Chi-Square	1.5075	0.2195	1.9717	0.1603	0.8157	0.3664
Phi Coefficient	0.2698		0.2503		0.2479	
Contingency Coefficient	0.2605		0.2428		0.2406	
Cramer's V	0.2698		0.2503		0.2479	

(3) EU에 대한 지식과 한-EU FTA, EU, EURO의 경제 공헌도

첫째, EU에 대한 이해도와 한-EU FTA의 한국경제 공헌도 간의 연관성을 교차분석을 한 결과 <표 9>의 교차분석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χ^2 통계량의 값과 likelihood ratio χ^2 값, Phi 계수 값, 분할표계수(contingency coefficient) 값, 그리고 Cramer's V 값 등으로 볼 때 모두 5% 혹은 10% 유의수준에서 서로 연관성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모두 기각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EU에 대한 이해도와 한-EU FTA의 한국경제 공헌도 간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EU에 대해 잘 알고 모르고를 떠나 모두 한-EU FTA의 한국경제 공헌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EU에 대해 잘 아는 응답자의 67%가 한-EU FTA의 한국경제 공헌도에 대해 아주 긍정적이거나 긍정적이고, EU에 대해 잘 모르는 응답자의 역시 71%가 긍정적이라서, EU에 대한 이해도와 한-EU FTA의 한국경제 공헌도 간에는 유의적인 정비례 혹은 반비례 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EU에 대한 이해도와 관계 없이 모두 한-EU FTA의 한국경제 공헌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그러나 EU에 대한 이해도와 EU 통합의 세계경제 공헌도 간의 관계에서는 교차분석 결과, <표 9>에서 나타나 있듯이 χ^2 통계량의 값과 likelihood ratio χ^2 값, Mantel-Haenszel Chi-Square 값 등의 p 값이 모두 0.05보다 작으므로, 5% 유의수준에서 EU에 대한 이해도와 EU 통합의 세계경제 공헌도 간의 연관성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

각하고 있다. EU를 잘 아는 응답자 중 76%가 EU 통합의 세계경제 공헌도에 대해 아주 긍정적이거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반면, EU를 잘 모르는 응답자의 33%만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EU를 잘 모르는 응답자 중 그 외 나머지는 EU 통합의 세계경제 공헌도에 대해 보통이거나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하여 EU를 잘 아는 응답자일수록 EU 통합의 세계경제 공헌도 효과를 긍정적으로 생각함으로써, 이들 간에는 정의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EU에 대한 이해도와 한-EU FTA, EU, EURO의 경제 공헌도

EU 이해(독립변수)	한-EU FTA의 한국경제 공헌		EU 통합의 세계경제 공헌		EURO의 세계경제 공헌	
	Value	Prob	Value	Prob	Value	Prob
Statistic						
Chi-Square	1.7630	0.6230	9.1870	0.0269	6.4024	0.0936
Likelihood Ratio Chi-Square	3.1134	0.3745	8.8932	0.0307	7.5378	0.0566
Mantel-Haenszel Chi-Square	0.7725	0.3795	8.4256	0.0037	4.8883	0.0270
Phi Coefficient	0.1151		0.2618		0.2194	
Contingency Coefficient	0.1144		0.2533		0.2143	
Cramer's V	0.1151		0.2618		0.2194	

셋째, EU에 대한 이해도와 EURO의 세계경제 공헌도 간의 관계에서는 교차분석 결과, <표 19>에서 교차분석 결과에서 나타나 있듯이 χ^2 통계량의 값과 likelihood ratio χ^2 값, Mantel-Haenszel Chi-Square 값 등의 p 값이 모두 0.05 혹은 0.10보다 작으므로, 5% 혹은 10% 유의수준에서 EU에 대한 이해도와 EURO의 세계경제 공헌도 간의 연관성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있으므로 연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EU에 대한 이해도와 EU 통합의 세계경제 공헌도 간의 긍정적인 관계와는 달리, EU에 대한 이해도와 EURO의 세계경제 공헌도 간에는 부정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EU를 잘 아는 응답자 중 49.6%가 EURO의 세계경제 공헌도에 대해 아주 긍정적이거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50.4%는 보통이거나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EU를 잘 모르는 응답자의 14.3%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반면, 85.7%는 보통이거나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EU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EURO의 세계경제 공헌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2010년 전후로 EU의 재정위기 및 경제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EURO를 사용하는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등에서 EURO 자체에 대한 경제위기국들에서 회의적인 시각과 특히 그리스의 EURO 탈퇴 즉 그렉시트에 대한 불안감과 국민회의, 그리고 최근 영국의 브렉시트 등의 불안감 등을 내포하여 EU를 잘 알수록 EURO의

세계경제 공헌도에 대한 불안감과 회의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 분산분석을 통한 차이성 검정

1) 학년별 성별에 따른 지역·국가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성

학년별(a1), 성별(a2)에 따라 주요 지역·국가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ANOVA(분산분석)를 한 결과가 다음 <표 10>에 나타나 있다.

<표 10> 학년별 성별에 따른 주요 지역·국가에 대한 이해도

종속변수	독립변수	Anova 자승합	평균 자승합	F 값	Pr > F
유럽	a1	2.52352166	0.84117389	1.54	0.2071
	a2	0.03232816	0.03232816	0.06	0.8081
EU	a1	0.42784374	0.14261458	0.20	0.8981
	a2	0.00123545	0.00123545	0.00	0.9671
중국	a1	0.46396537	0.15465512	0.20	0.8990
	a2	4.58551456	4.58551456	5.81	0.0174
미국	a1	4.83294793	1.61098264	2.12	0.1016
	a2	3.04128516	3.04128516	3.99	0.0479
일본	a1	4.83294793	1.61098264	2.12	0.1016
	a2	3.04128516	3.04128516	3.99	0.0479
ASEAN	a1	0.38932875	0.12977625	0.19	0.9018
	a2	0.02675768	0.02675768	0.04	0.8427

학년별 성별로 각 지역국가들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유럽과 EU, ASEAN에 대해서는 그들의 F 값과 확률 값인 p값(Pr > F)을 볼 때, 유의적인 차이성은 5% 유의수준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학년별로 유의적인 차이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별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이 지역을 더 잘 아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성이 5% 유의수준에서 각각 나타났다.

2) 학년별 성별에 따른 FTA 중요성 차이

학년별 성별로 주요 지역·국가의 FTA에 대한 중요성의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Wilks' Lambda 값, Pillai's Trace 값, Hotelling-Lawley Trace 값, Roy's Greatest Root 값 등으로 볼 때, 역시 성별에 따른 차이성은 나타나지 않았고 학년별로는 5%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없었지만 10% 유의수준에서는 차이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학년별 성별에 따른 FTA 중요성

독립변수	통계량	값	F 값	Pr > F
학년별	Wilks' Lambda	0.86365101	1.60	0.0908
	Pillai's Trace	0.14155671	1.60	0.0898
	Hotelling-Lawley Trace	0.15188169	1.60	0.0939
	Roy's Greatest Root	0.09053407	2.92	0.0237
성별	Wilks' Lambda	0.99119646	0.28	0.8892
	Pillai's Trace	0.00880354	0.28	0.8892
	Hotelling-Lawley Trace	0.00888173	0.28	0.8892
	Roy's Greatest Root	0.00888173	0.28	0.8892

3) EU, 유럽, EURO 이해도에 따른 경제 공헌도

EU에 대한 이해도(b1)와 EU와 유럽의 차이에 대한 이해도(b2), 그리고 EURO에 대한 이해도와 지식(b3)에 따라 한-EU FTA의 한국경제 공헌도에 관한 견해에 차이성이 있는지 없는지 분산분석을 한 결과, <표 12>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Wilks' Lambda 값, Pillai's Trace 값, Hotelling-Lawley Trace 값, Roy's Greatest Root 값 등의 F 값과 확률 값인 p값을 볼 때, 유의적인 차이성은 5% 혹은 10% 유의수준에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응답자 모두가 한-EU FTA의 한국경제 공헌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EU에 대한 이해도(b1)와 EU와 유럽의 차이에 대한 이해도(b2)에 따라 EU 통합의 세계경제 공헌도에 차이성이 발견되었고, 이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EU 통합의 세계경제 공헌도에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F 값과 확률 값인 p값을 볼 때, 유의적인 차이성은 5% 유의수준에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EU에 대한 이해도(b1)와 EU와 유럽의 차이에 대한 이해도(b2)에 따른

EURO 통합이 세계경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산분석을 한 결과, <표 12>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F 값과 확률 값인 p값을 볼 때, 5% 유의수준에서 그 차이성이 나타났다. 그러나 EURO에 대한 이해도와 지식(b3)에 따라 EURO 통합이 세계경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의적인 차이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EU, 유럽, EURO 이해의 경제에 대한 공헌도

종속변수	독립변수	Anova 자승합	평균자승합	F 값	Pr > F
한-EU FTA의 한국경제 공헌	b1	0.31843157	0.31843157	0.95	0.3314
	b2	0.39699413	0.39699413	1.19	0.2783
	b3	0.07408768	0.07408768	0.22	0.6389
EU 통합의 세계경제 공헌	b1	4.01968620	4.01968620	9.40	0.0026
	b2	1.58797654	1.58797654	3.71	0.0562
	b3	0.29635071	0.29635071	0.69	0.4067
EURO의 세계경제 공헌	b1	2.50350140	2.50350140	4.79	0.0304
	b2	2.49865591	2.49865591	4.78	0.0306
	b3	0.21390864	0.21390864	0.41	0.5234

그리고 EU에 대한 이해도(b1)와 EU와 유럽의 차이에 대한 이해도(b2), 그리고 EURO에 대한 이해도와 지식(b3)에 따라 이들이 3개 전체의 공헌도 즉 한-EU FTA의 한국경제 공헌도, EURO 통합이 세계경제 미치는 영향, EU 통합 세계경제에 대한 공헌도, EURO 통합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차이성이 있는지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하였다.

그 결과 <표 13>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Wilks' Lambda 값, Pillai's Trace 값, Hotelling-Lawley Trace 값, Roy's Greatest Root 값 등의 F 값과 확률 값인 p값을 볼 때, 5% 유의수준에서 차이성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EU에 대한 이해도(b1)가 높을수록 한국경제와 세계경제에 대한 공헌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EU와 유럽의 차이에 대한 이해도(b2)와 EURO에 대한 이해도와 지식(b3)에 따른 한-EU FTA의 한국경제 공헌도, EU 통합 세계경제에 대한 공헌도, EURO 통합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F 값과 확률 값인 p값을 볼 때, 5% 유의수준에서 차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EU, 유럽, EURO 이해의 전체 공헌도

독립변수	통계량	값	F 값	Pr > F
EU 지식(b1)	Wilks' Lambda	0.92672162	3.32	0.0220
	Pillai's Trace	0.07327838	3.32	0.0220
	Hotelling-Lawley Trace	0.07907270	3.32	0.0220
	Roy's Greatest Root	0.07907270	3.32	0.0220
유럽지식(b2)	Wilks' Lambda	0.95493733	1.98	0.1200
	Pillai's Trace	0.04506267	1.98	0.1200
	Hotelling-Lawley Trace	0.04718914	1.98	0.1200
	Roy's Greatest Root	0.04718914	1.98	0.1200
EURO 지식 (b3)	Wilks' Lambda	0.98296192	0.73	0.5371
	Pillai's Trace	0.01703808	0.73	0.5371
	Hotelling-Lawley Trace	0.01733341	0.73	0.5371
	Roy's Greatest Root	0.01733341	0.73	0.5371

4) EU와 한-EU FTA 인식과 한-EU FTA 의 경제공헌도

독립변수들인 EU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와 한-EU FTA 중요성 인식에 따른 종속변수 즉 한-EU FTA의 한국경제 공헌도에 차이성이 있는지 분산분석을 각각 한 결과, <표 14>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F 값과 확률 값인 p값을 볼 때, 5% 유의수준에서 각각 그 차이성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EU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한-EU FTA 중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한-EU FTA의 한국경제 공헌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표 14> EU, 유럽, EURO 이해의 한-EU FTA 공헌도

종속변수	독립변수	Anova 자승합	Mean 자승합	F Value	Pr > F
한-EU FTA의 한국경제 공헌도	EU 이해도	4.86305684	1.21576421	3.91	0.0050
	한-EU FTA 중요성 인식	4.40144944	0.88028989	2.80	0.0197

5) 지역·국가의 중요성 인식과 한-EU FTA 공헌도

주요 지역·국가들에 대한 중요성 인식에 따라 한-EU FTA의 한국경제 공헌도와 EU 통합의 세계경제 공헌도에 그 차이성이 있는지 분산분석을 각각 한 결과, <표 15>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F 값과 확률 값인 p값을 볼 때, 오직 EU 지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에 따른 그 공헌도에 대한 차이성이 각각 5% 유의수준에서 나타났다. 그리하여 오직 EU 지역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이들의 한국경제 및 세계경제 공헌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반면, EU 이외 지역의 중요성 인식에 따른 이들의 한국경제 및 세계경제 공헌도에 대한 차이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위와는 달리 주요 지역·국가들에 대한 중요성 인식에 따른 EURO의 세계경제에 대한 공헌도에는 <표 15>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F 값과 확률 값인 p값을 볼 때, 인도를 제외하고는 그 차이성이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의 주요 지역·국가들의 중요성 인식에 따라 전체 한-EU FTA의 한국경제 공헌도, EU 통합의 세계경제 공헌도, EURO의 세계경제에 대한 공헌도에 대한 차이성이 있는지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한 결과, <표 15>의 아랫부분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Wilks' Lambda 값, Pillai's Trace 값, Hotelling-Lawley Trace 값, Roy's Greatest Root 값 등의 F 값과 확률 값인 p값을 볼 때, 오직 EU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이들 3개 공헌도에 대한 차이성이 나타났고, 다른 지역들의 중요성 인식과는 이들 3개 공헌도에 대한 차이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15> 지역·국가의 중요성에 따른 한-EU FTA 공헌도

종속변수	독립변수	Anova 자승합	Mean 자승합	F 값	Pr > F
한-EU FTA의 한국경제 공헌도	중국	1.29369662	0.32342415	1.01	0.4052
	미국	1.40187352	0.35046838	1.10	0.3626
	EU	4.67000369	1.55666790	4.86	0.0032
	일본	1.08110620	0.27027655	0.84	0.4999
	ASEAN	0.28031559	0.09343853	0.29	0.8311
	인도	0.45905537	0.09181107	0.29	0.9194
EU 통합의 세계경제 공헌	중국	3.08658971	0.77164743	1.85	0.1249
	미국	1.32041146	0.33010286	0.79	0.5339
	EU	6.07128659	2.02376220	4.85	0.0033
	일본	1.74334391	0.43583598	1.04	0.3882
	ASEAN	0.98566762	0.32855587	0.79	0.5039
	인도	2.04997739	0.40999548	0.98	0.4324
EURO의 세계경제 공헌	중국	2.10857291	0.52714323	1.04	0.3886
	미국	1.27342118	0.31835530	0.63	0.6423
	EU	3.18846565	1.06282188	2.10	0.1041
	일본	1.44268445	0.36067111	0.71	0.5845
	ASEAN	2.89540680	0.96513560	1.91	0.1323
	인도	5.90416101	1.18083220	2.34	0.0467
MANOVA					
통계량	값	F 값	Pr > F		
Wilks' Lambda	0.80972438	2.65	0.0060		
Pillai's Trace	0.19440418	2.54	0.0079		
Hotelling-Lawley Trace	0.22991115	2.74	0.0052		
Roy's Greatest Root	0.20586807	7.55	0.0001		

6) 지역·국가들과의 FTA의 중요성 인식에 따른 경제공헌도

우리나라와 주요 지역·국가들의 FTA들의 중요성 인식에 따라 한-EU FTA의 한국경제 공헌도, EU 통합의 세계경제 공헌도, EURO의 세계경제에 대한 공헌도에 대한 차이성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하였다.

분산분석을 한 결과, <표 16>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F 값과 확률 값인 p값을 볼 때, 먼저 한-EU FTA의 중요성과 한-EU FTA의 한국경제 공헌도, EU 통합의 세계경제 공헌도, EURO의 세계경제에 대한 공헌도 간에는 각각 5% 유의수준에서 그 차이성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한-EU FTA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이들 3개의 경제공헌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한-EU FTA의 한국경제 공헌도 간에는 F 값과 확률 값인 p값을 볼 때, 5% 유의수준에서 그 차이성이 나타나, 한-미 FTA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한-EU FTA의 한국경제 공헌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한-ASEAN FTA, 한-중-일 FTA에 대한 중요성 인식에 따른 한-EU FTA의 한국경제 공헌도와 EU의 세계경제 공헌도에는 차이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한-미 FTA에 대한 중요성 인식에 따른 EU의 세계경제 공헌도 등에도 그 차이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한-중-일 FTA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EURO의 세계경제 공헌도 간에도 그 차이성이 나타났다.

<표 16> 지역·국가들과의 FTA의 중요성 인식과 경제공헌도

종속변수	독립변수	Anova 자승합	Mean 자승합	F 값	Pr > F
한-EU FTA의 한국경제 공헌	한-미 FTA	2.15861673	0.71953891	2.77	0.0446
	한-EU FTA	8.22636352	2.74212117	10.56	<.0001
	한-ASEAN FTA	1.09052246	0.36350749	1.40	0.2464
	한-중-일 FTA	1.74165447	0.43541362	1.68	0.1599
EU 통합의 세계경제 공헌	한-미 FTA	2.46409201	0.82136400	2.00	0.1175
	한-EU FTA	6.56735150	2.18911717	5.33	0.0017
	한-ASEAN FTA	0.38870243	0.12956748	0.32	0.8140
	한-중-일 FTA	2.52567554	0.63141889	1.54	0.1954
EURO의 세계경제 공헌	한-미 FTA	1.99646067	0.66548689	1.31	0.2754
	한-EU FTA	4.11425167	1.37141722	2.69	0.0492
	한-ASEAN FTA	0.02925983	0.00975328	0.02	0.9964
	한-중-일 FTA	5.17537313	1.29384328	2.54	0.0433

그리고 다변량 분산분석(MANOVA)결과, 한-EU FTA 중요성 인식에 따른 한-EU FTA의 한국경제 공헌도, EU 통합의 세계경제 공헌도, EURO의 세계경제에 대한 공헌도 간에는 Wilks' Lambda 값, Pillai's Trace 값, Hotelling-Lawley Trace 값, Roy's Greatest

Root 값 등으로 볼 때, 각각 5% 유의수준에서 그 차이성이 나타났고, 한-EU FTA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그 공헌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미 FTA 중요성 인식에 따른 한-EU FTA의 한국경제 공헌도, EU 통합의 세계경제 공헌도, EURO의 세계경제에 대한 공헌도 간에는 각각 10% 유의수준에서는 그 차이성이 나타났지만, 5% 유의수준에서는 그 차이성이 유의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표 17> 지역·국가들과의 FTA의 중요성 인식과 경제공헌도 MANOVA

	통계량	값	F 값	Pr > F
한-미 FTA	Wilks' Lambda	0.88349515	1.67	0.0965
	Pillai's Trace	0.11980681	1.66	0.0962
	Hotelling-Lawley Trace	0.12813392	1.67	0.0991
	Roy's Greatest Root	0.08434483	3.37	0.0207
한-EU FTA	Wilks' Lambda	0.72328701	4.55	<.0001
	Pillai's Trace	0.28220119	4.15	<.0001
	Hotelling-Lawley Trace	0.37498928	4.89	<.0001
	Roy's Greatest Root	0.35352763	14.14	<.0001

3. 정준상관분석과 판별분석

1) 학년별·성별과 지역 중요성 정준상관

<표 18>A항에서 첫 번째 정준상관계수는 0.36, 두 번째 정준상관계수는 0.21로 각각 나타나 있다. B항에서는 첫 번째 정준변수의 쌍이 두 집단 간 상관관계의 77.26%, 나머지 정준변수의 쌍이 두 집단 간 상관관계의 22.74%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고유값은 각각 0.15과 0.04로 나타나 있다.

C항에서 우도비(Likelihood Ratio)와 이에 대한 F 통계량 값을 살펴보면, 첫 번째의 정준상관계수는 우도비가 0.83으로 나타났고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번째의 정준상관계수는 0.96으로 나타났고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D항에서는 Wilk's Lambda가 0.83, Pillai's Trace 0.17, Hotelling-Lawley Trace 0.20, Roy's Greatest Root로 각각 나타났고 이들 모두의 F 통계량 값은 모두 5% 유의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년별·성별과 우리나라 입장에서 주요 지역·국가 간의 중요성 인식 간에는 정준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학년별·성별과 지역 중요성 정준상관

A	정준상관 계수	조정된 정준상관계수	표준오차	자승정준 상관계수	B. 고유값분석			
					고유값	차이	비율	누적
1	0.3634	0.3036	0.07497	0.13206	0.1522	0.1074	0.7726	0.7726
2	0.2070	0.1531	0.08268	0.04286	0.0448		0.2274	1.0000

C. 가설검정 Ho: 정준상관 없음

	우도비(Likelihood Ratio)	F 값	Pr > F
1	0.83073673	2.06	0.0203
2	0.95713870	1.15	0.3394

D. 다변량 통계량과 F 값

Statistic	Value	F Value	Pr > F
Wilks' Lambda	0.83073673	2.06	0.0203
Pillai's Trace	0.17492363	2.04	0.0211
Hotelling-Lawley Trace	0.19693712	2.07	0.0204
Roy's Greatest Root	0.15215646	3.25	0.0053

2) 성별 지역·국가에 대한 전반적 인식도 판별분석

본 절에서는 성별 판별변수에 따른 판별관측변수인 지역·국가에 대한 이해도에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성을 각각 분석하기 위해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하는데 그 결과가 <표 19>에 나타나 있다. 성별에 따라 유럽과 EU에 대해서는 성별에 차이가 없이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F 통계량 값을 봤을 때, 5% 유의수준에서 중국과 미국은 차이가 있으며, 남자가 중국과 미국지역을 여자보다 더 잘 인식하고 있다. 일본에 대해서도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10% (5.38%) 유의수준에서 더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SEAN에 대해서도 남녀 구분 없이 거의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다.

<표 19> 성별 지역·국가에 대한 전반적 인식도 판별분석

지역	총 표준편차	결합된 표준편차	집단 내 표준편차	R2	R2 / (1-R2)	F 값	Pr > F
유럽	0.7418	0.7443	0.0320	0.0009	0.0009	0.12	0.7283
EU	0.8387	0.8419	0.004787	0.0000	0.0000	0.00	0.9634
중국	0.8971	0.8791	0.2743	0.0471	0.0494	6.38	0.0128
미국	0.8476	0.8381	0.2063	0.0299	0.0308	3.97	0.0484
일본	0.8907	0.8813	0.2119	0.0285	0.0294	3.79	0.0538
ASEAN	0.8093	0.8122	0.0246	0.0005	0.0005	0.06	0.8068

주:R2는 모든 표들에서 결정계수를 말함.

3) 성별과 한국과 주요 지역·국가의 FTA 간의 인식도 판별분석

성별에 따라 한국과 다른 국가 및 지역 간의 FTA 전반적 인식도에 대한 차이를 보면 <표 20>에 나와 있는 것 같이, F 통계량 값을 봤을 때, 성별에 따른 한-미 FTA, 한-EU FTA, 한-ASEAN FTA, 한-중-일 FTA에 관한 인식도에 대한 차이는 5% 유의수준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표 20> 성별과 지역·국가 간의 FTA 판별분석

FTA	총 표준편차	결합된 표준편차	집단 내 표준편차	R2	R2 / (1-R2)	F 값	Pr > F
한-미	0.9265	0.9319	0.1131	0.0113	0.0114	0.49	0.6898
한-EU	2.8658	2.8956	0.1571	0.0023	0.0023	0.10	0.9611
한-ASEAN	0.8703	0.8759	0.1004	0.0101	0.0102	0.44	0.7267
한-중-일	0.8929	0.8867	0.1956	0.0363	0.0376	1.62	0.1885

4) 성별 지역국가의 중요성 인식도에 대한 차이성 판별분석

유럽과 EU에 대해서는 성별에 차이가 없이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 유의수준에서 남자가 중국과 미국지역을 여자보다 더 잘 인식하고 있어 중국과 미국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 대해서도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10% (5.38%) 유의수준에서 더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SEAN에 대해서도 남녀

구분 없이 거의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다.

<표 20> 성별 지역·국가의 중요성 인식도 판별분석

지역	총 표준편차	결합된 표준편차	집단 내 표준편차	R2	R2 / (1-R2)	F 값	Pr > F
중국	0.7497	0.7483	0.1116	0.0112	0.0113	1.51	0.2208
미국	0.6709	0.6684	0.1142	0.0146	0.0148	1.99	0.1611
EU	0.7392	0.7397	0.0810	0.0060	0.0061	0.81	0.3684
일본	0.8297	0.8302	0.0926	0.0063	0.0063	0.85	0.3593
ASEAN	0.8040	0.8064	0.0445	0.0015	0.0015	0.21	0.6500
인도	2.6128	2.6129	0.3162	0.0074	0.0074	1.00	0.3201

5) 성별 한국-EU FTA, EU 통합, EURO의 경제적 공헌도 차이성 판별 분석

성별에 따라 한국-EU FTA, EU 통합, EURO의 경제적 공헌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성을 판별분석을 통해 본다. 먼저 성별에 따라 한국-EU FTA의 한국경제 공헌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성을 보면, F 통계량 값을 보면 5% 유의수준에서 성별로 차이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분석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남자가 한국-EU FTA의 한국경제에 더 긍정적으로 공헌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EU 통합의 세계 경제발전에 대한 공헌도, EURO화 통합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공헌도에 대한 인식은 F 통계량 값을 보면 5% 유의수준에서 각각 그 차이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성별 한국-EU FTA, EU 통합, EURO의 경제적 공헌도 판별분석

공헌도	총 표준편차	결합된 표준편차	집단 내 표준편차	R2	R2 / (1-R2)	F 값	Pr > F
한-EU FTA	0.5777	0.5671	0.1699	0.0435	0.0455	6.01	0.0155
EU 통합	0.6784	0.6789	0.0726	0.0058	0.0058	0.77	0.3831
EURO화	0.7379	0.7382	0.0856	0.0068	0.0068	0.90	0.3445

IV. 결 언

본 연구는 대부분의 계량적인 모델에 기초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여 한국-EU FTA, EU와 EURO, 다른 지역·국가, 한국과 다른 지역·국가들과의 FTA 등에 대한 이해도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인식변인들에 따라 이들이 한국경제 및 세계경제에 대한 향후 경제적 공헌도에 대한 어떤 연관성과 차이성이 있는가를 분석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EU 지역과 유럽, 유로 한국-EU FTA에 대한 이해도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변인에 따른 그 공헌도를 살펴보고 인식변인에 따른 연관성과 차이성을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 분산분석, 판별분석, 정준상관분석 등의 통계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지역·국가들에 대한 이해도와 중요성을 보면, EU에 대한 이해도는 미국과 일본보다는 낮았지만, 중국보다도 높게 나타난 반면, EU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미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EU FTA에 대한 이해도는 한-미 FTA보다 다소 낮았지만 한-ASEAN 혹은 한-중-일 FTA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그 중요성은 한-ASEAN FTA보다는 높았지만, 한-중-일 FTA보다 낮게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75% 이상이 한-EU FTA가 한국경제에 대해, 약 63%가 EU 경제통합이 세계경제에 향후 긍정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EURO 통합의 세계경제에 대한 긍정적 공헌도는 45%로 나타났으며 보통 혹은 부정적인 응답도 5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둘째, 교차분석 결과 성별과 각 지역·국가 간 이해도와 연관성이 나타났으나 학년별 성별로는 한-EU FTA 이해도와는 연관성이 없었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EU의 중요성이 달리 나타나 여자들이 더 EU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학년과 성별에 따른 한국과 각 지역·국가와의 FTA 중요성 간에는 연관성이 없었다.

셋째, 분산분석 결과 학년별 성별에 따라 유럽과 EU, 그리고 우리나라와 각 지역국가와의 FTA에 대한 학년별 성별로 전반적 이해도와 중요성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U와 한-EU FTA 이해도와 중요성과 한-EU FTA의 경제공헌도 간에는 정의 관계가 나타나, EU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한-EU FTA 중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한-EU FTA의 한국경제 공헌도, EU 통합의 세계경제 공헌도, EURO의 세계경제에 대한 공헌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준상관분석 결과, 학년·성별과 우리나라 입장에서 주요 지역·국가 간의 중요성 인식 간에는 정준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성별과 우리나라와 주요

지역·국가 간의 FTA에 대한 중요성 인식 간에는 정준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판별분석 결과 성별에 따라 유럽과 EU에 대해서는 성별에 차이가 없이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한-미 FTA, 한-EU FTA, 한-ASEAN FTA, 한-중-일 FTA에 관한 인식도에 대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한국-EU FTA의 한국경제 공헌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성을 보면, 남자가 한국-EU FTA의 한국경제에 더 긍정적으로 공헌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EU 통합의 세계 경제발전에 대한 공헌도, EURO화 통합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공헌도에 대한 인식은 각각 그 차이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는 하지 않았던 FTA와 지역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변인에 따른 통계적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EU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또-EU FTA 중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한-EU FTA의 한국경제 공헌도가 높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시에 EU의 세계경제에 대한 공헌도 역시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특정집단인 부산대학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하고 있다. 그리하여 표본 집단의 선정이 우리나라 대학생 전체에 대한 보편적인 결과라고 보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그리고 향후과제로 설문대상을 향후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확장하거나, 대학생뿐만 아니라 한-EU FTA 활용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리하여 향후 이러한 설문조사 대상과 대상 지역을 좀 더 확장하여 분석하고 비교한다면 좀 더 보편적이고 설득력 있는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지만 향후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김홍종·이창수·김근태·강준구·박순찬(2005),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KIEP, 『정책연구』, 05-09.
- 김태기(2012), “한국 수출특화산업의 동태적 변화”, 『무역학회지』, 제37권 제 2호, pp.49-72.
- 명진호·정재화(2012), “한-EU FTA의 對EU 수출 확대 효과 분석”, 『국제지역 연구』, 제 16권 제 2호, pp. 123-146.
- 송백훈·김홍종·이준규·서진교(2007), “한미, 한·EU FTA 동시추진의 경제적 효과”, 『오늘의 세계경제』, KIEP, 제 07-32호.
- 예한나·이재득(2014), “한국-EU FTA 발효에 따른 무역구조 비교분석”, 『국제지역연구』, 제 18권 제 1호, pp.433-456.
- 이재득(2012), “한국-EU FTA에 따른 한국의 EU시장 경쟁력과 동학적 비교우위 분석”, 『유럽연구』, 30(1), pp.1-40.
- 이재득(2009), “한국과 EU의 교역구조 분석”. 『유럽연구』, 27(2), pp.259-296.
- 조미진·김태황(2012), “한·EU FTA 발효에 따른 경제적 성과 분석”, 『EU학 연구』, 17(1), pp.1-27.
- Carl Norsten and Olena Burlutska 2012). Impact of the EU-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on Swedish Manufacturing Firms, School of Business, *Economics and Law*, University of Gothenburg.
- Eaton, J. and S. Kortum(2002), “Technology, Geography, and Trade”, *Econometrica*, Vol. 70, No. 5, pp.1741-1776.
- Krugman, P. (1991), *Geography and Trade*, MIT Press.
- Parsley, D. C. and S. J. Wei.(2001), “Explaining the Border Effect: the Role of Exchange rate Variability, Shipping Costs, and Geograph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55, pp.87-105.
- Yi, Chae-Deug(2015), “A Study of Ex Post Realized Trade Effects of Korea-EU FTA”, *The Jou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Volume 16, Number 2, May 2015, pp.319-342.

An Empirical Study of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and Correlation on the EU and Korea-EU FTA

Chae-Deug Yi

Abstract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relationship among the perception variables on the EU and Korea-EU FTA.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first of all, while Korean university students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EU less than those in the US or Japan, they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EU more those in China. The understanding and importance of Korea-EU FTA are measured somewhat lower than Korea-US FTA. Second, Contingency Tables show that there exist some associated relationships between the sex and the understanding of the regions, and Korean university students have some differences in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the EU by sex. ANOVA shows that the more they understand the EU and recognize the importance of Korea-EU FTA, they recognize that the Korea-EU FTA's contribution to Korean economy and EU's & EURO's contribution to world economy will be bigger. Third, the canonical correlation test shows that by the academic grade and sex there are some significant differences in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the EU and main countries and regions. The discriminant analysis shows that there exist some differences in recognizing the contribution of Korea-EU FTA's to Korean economy.

<Key Words> EU, KOREA-EU FTA, EURO, Correlation